

논문

언덕 위의 도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이상

오 덕 교

(합동신학교 교수, 역사학)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청교도 신학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것은 한국에 온 초기의 선교사들이 청교도적인 신앙 유산을 가진 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오래 전부터 고백하여 온 신앙 고백이 바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조이기 때문이다.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보다는 오히려 뉴잉글랜드에서 더 발전하였고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상은 신대륙의 앞날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성경에 근거한 예배, 성경에 근거한 교리, 성경에 근거한 교회 형태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신앙적인 이상을 살펴 보면서 20세기 말에 사는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입장을 세워보고자 한다. 특히 뉴잉글랜드 교회와 사회의 터를 놓았던 존 윈스롭(John Winthrop, 1588-1649)을 중심으로 하여 청교도들이 추구하였던 사회적 이상과 교회적 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윈스롭은 비분리주의적인 회중교회주의자를 대표하는 청교도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

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영국 교회가 빛을 잃고, 정부 또한 교회를 개혁하려는 이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멀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영국 위에 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윈스롭은 영국 안에 있으면서 영국을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영국을 떠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따라서 윈스롭은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가서 영국과 구라파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정부, 곧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세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윈스롭은 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계획하면서 동지들을 규합, 1629년 뉴잉글랜드 컴패니(New England Company)를 조직하고, 1630년 3월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의 환송 설교를 들으며 영국을 떠나 같은 해 여름 뉴잉글랜드의 보스톤에 도착, 마

사추세츠주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윈스롭은 분리주의자들과는 달리 영국을 축복하고, 영국 왕의 축복 속에 왕이 준 유헬장(charter)을 가지고 떠났다. 유헬장은 윈스롭과 그의 동행들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그 이유는 영국의 왕이 허락한 유헬장과 함께 이민하므로 분리주의자라는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유헬장에 근거하여 뉴잉글랜드를 건설할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윈스롭 일행은 이 유헬장에 근거하여 그들의 계획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고 신성한 정부를 건설함으로써 유럽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신성한 정부(Holy Commonwealth)를 건설하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 교리, 그리고 교회 정부를 세우려면 그 정부와 사회를 구속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법에 의한 구속이란 사실상 어느 면에서의 개인적인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고, 공동체의 의를 실현키 위하여 상호간을 얽어매는 계약 관계의 정립을 뜻한다. 이 점이 윈스롭이 구상하는 사회와 필리머스를 세운 브래포드가 추구하였던 이상과 다른 점이다. 윌리엄 브래포드(William Bradford)는 1620년 메이플라워(the Mayflower)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민한 분리주의적 청교도의 대표적 인물로 필리머스 식민지의 지사(governor)였다. 브래포드는 「필리머스 식민지에 대하여(of plymouth Plantation)」

라는 책에서 그가 뉴잉글랜드에 온 목적을 말씀에 의한 통치나 교회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보스톤에 온 비분리주의적인 다수의 청교도와는 달리, 공동체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다. 브래포드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종교적, 또는 개인적인 자유뿐이었다.

윈스롭과 그 일행은 브래포드의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공동체의 의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정부를 세워 말씀이 왕 노릇하는 사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윈스롭은 개인적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규칙과 규범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양심 또는 그 양심에 근거한 개인적 자유가 최종적인 규범이 된다면 결국 사회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무정부 상태가 올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브래포드의 사상은 최근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 연애자들의 교회, 또는 남색(Gay) 또는 여색(Lesbian)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브래포드의 개인주의와 동성 연애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는 일맥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윈스롭과 브래포드의 건국 이념의 차이는 신대륙의 운명을 결정케 되었는데,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동체의 의(corporate right-

eousness) 를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미국인들에 남겨 주었다.

그럼 윈스럽이 구상하였던 정부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윈스럽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한 설교 「그리스도인 사랑의 모델 (A Modell of Christian Charity)」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결속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여 구라파의 모든 국가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울 것을 호소하였다. 청교도들은 생각하기를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회의 질서 속에 적용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불의한 자 또는 악한이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거룩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성경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률을 뉴잉글랜드 토양에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신율주의자들(theonomists) 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렉 반센(Greg Bahnsen)은, 청교도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법을 그들의 법으로 채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법이 사회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사회의 법으로 채택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율론자들은 대체로 뉴잉글랜드의 정치 형태를 구약 시대 정치 형태인 신정 정치 또는 중세 시대 교황이 교회를 다스렸던 교황 정치와 동일시하여 성직자의 통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청교도 운동은 성직자의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 의해 통치였다는 점이다.

청교도들은 정부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보는 국교주의는 배척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 교회를,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국교로 인정하여 정부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회심 체험과 관계 없이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주장하기를 국교주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케 하므로 성도의 통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는 기독교적인 정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에겐 정부란 기독교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지 그 중간 형태란 없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에 의하면 기독교적인 정부는 오직 기독교인이 통치자가 될 때에 가능하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귀족이면 누구나 참정권을 주었던 칼빈이나, 40 실링만 있으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영국과는 달리, 오직 교회의 회원에게만 공민권을 허락하였다. 왜냐하면 거룩한 국가는 거룩한 법에서 오고 거룩한 법은 거룩한 백성에 의하여 집행될 때에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불신자에 의해서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윈스럽은 1630년 10월 19일에 공민권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였다. 이날로부터 뉴잉글랜드는 식민지의 건설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 이들의 사회가 아니라 교회 회원권을 가진 자만이 정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체제로 변혁되었다. 따라서 뉴잉글랜드에서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경제적 기준에서 신앙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모든 기초적인 권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visible saints)에게만 주어졌다. 이때로부터 뉴잉글랜드에서는 비록 자유인이라도 교회 회원권을 소유하지 못한 이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존 나스는 누구든지 교회에서 태어난 자로 출교 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교회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뉴잉글랜드에서는 교회 회원이 되려면 진실한 성도의 표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위선자로부터 진실한 성도(visible saint)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 체험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여야만 성도로 받아들인 것이다. 청교도들은 회심 체험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사탄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성경에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한 내세의 심판을 믿고 벌벌 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정치 영역에 참여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은혜 체험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일은 꼭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였고, 그 종교의 근본적인 것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누구나 교회에 오면 교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은혜 체험이 없다면 그 누구도 결코 교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설령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회심 체험이 없었다면 그는 교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체험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지가 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관문이 되었다.

위스럽은 이처럼 공민권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정부, 거듭난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설 수 있다고 믿었다. 회심 체험이 없으면 교인이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위선자가 교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회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들의 뜻에 따라 목사를 청빙하고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배우고,

말씀에 근거한 단순한 예배를 드리며, 회중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회중 교회 정치를 교회 안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방자하게 생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개인적 신념이나 자유를 핑계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사회에서 왕노릇하게 되므로 사람이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사회가 되었다. 더구나 청교도들은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을 허락지 않았다. 만일 통치자가 백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모든 사람은 법의 통치 아래서 정의와 평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이상향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윈스턴의 이상향은 1682년 찰스 2세(1660-1685)가 운허장을 취소할 때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존속할 수 있었다.

청교도 운동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 운동이 아니었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였던 단순한 교회 개혁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며, 정치 구조까지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사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운동이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청교도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한국 교회는 청교도들의 교훈에 따라서 바른 교회, 초대 교회의 단순한 예배, 경건한 바른 신학, 회중의 권한을 중시하고 모든 지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바른 교회 정부 형태로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그릇된 구조를 개혁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아는 많은 거듭난 신자들을 정치 영역에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속에 고루 뿌리를 내려 부정과 부패, 음란과 광포가 사라지고, 공의와 거룩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신학 논문집 소개 ■

聖經과 改革主義神學

본 논문 편집위원회 편 / 값 9,000원

국내의 신학자 30명이 쓴 30편의 귀중한 논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이 논문은 신학 분과별로 여섯 부분으로 분류한 것인데 특별히 성경연구 부분과 개혁주의 신학의 현(現今)의 문제들을 취급하였다.